

## 골프참여자의 지도자 신뢰와 여가 이득 및 회복탄력성의 관계

김형진<sup>†</sup>

중부대학교 골프학전공, 조교수

(2020년 9월 24일 접수: 2020년 10월 27일 수정: 2020년 10월 28일 채택)

### The Relationship among Trust of Instructors, Leisure Benefit and Resilience for Golf Participants

Hyung-Jin Kim<sup>†</sup>

*Department of Golf, Joongbu University*

*(Received September 24, 2020; Revised October 27, 2020; Accepted October 28, 2020)*

**요 약 :** 본 연구는 골프연습장 이용객을 대상으로 골프참여자의 지도자 신뢰와 여가 이득 및 회복탄력성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연구대상은 서울, 경기, 인천, 대전, 대구지역에 소재한 골프연습장 이용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표본은 비확률 표본추출법 중 편의표본추출법을 사용하여 표본을 추출하였고, 자기평가기입법으로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총 234부의 자료가 실제분석에 사용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SPSS 18.0과 AMOS 18.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신뢰도분석과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고 모형을 설정한 뒤 구조방정식모형(SEM)을 통하여 변인간의 인과적 관계를 규명하였다. 이상과 같은 연구방법과 연구모형 검증의 기초로 하여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골프참여자들의 지도자 신뢰는 여가 이득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골프참여자들의 여가 이득은 회복탄력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골프참여자의 지도자 신뢰는 회복탄력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골프참여자의 지도자 신뢰와 회복탄력성의 관계에서 여가 이득은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골프의 참여가 만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며, 더불어 골프를 통해 다양한 이득이 생길 수 있도록 다양하고 편리한 서비스의 모색 및 나아가 골프참여자에 대한 세심한 관찰을 통한 심리적인 관리까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주제어 :* 지도자 신뢰, 여가 이득, 회복탄력성, 골프참여자, 골프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among trust of instructors, leisure benefit and resilience for golf participants. To achieve the goal of this study, a total of 250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and 250 copies were collected back.

---

<sup>†</sup>Corresponding author  
(E-mail: [hjkim12@joongbu.ac.kr](mailto:hjkim12@joongbu.ac.kr))

Out of those returned questionnaires, insincerely replied or double-replied questionnaires were excluded and finally 234 questionnaires were analyzed for this study. For analysis of the data, frequency analysis, exploratory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structural equating modeling were conducted using SPSS 18.0 and AMOS 18.0. Main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trust of instructors had a positive effect on leisure benefit. Second, leisure benefit had a positive effect on resilience. Third, trust of instructors had a positive effect on resilience. Fourth, leisure benefit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golf participant trust of instructors and resilienc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make efforts to make golf participation lead to satisfaction, and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seek various and convenient services so that various benefits can be generated through golf, and even psychological management through careful observation of golf participants. Is judged.

*Keywords : Trust of Instructors, Leisure Benefit, Resilience, golf participants, golf*

## 1. 서론

여가 대중화 시대를 맞이하여 골프는 대중들에게 매우 친숙한 종목으로 인식되어 졌다. 더욱이 2016 리우 올림픽에서 박인비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하면서부터 우리나라는 골프 강국으로서 위상이 더욱 강화되었고, 골프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통하여 골프의 대중화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골프가 여러 가지 다양한 매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골프는 자연에서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야외스포츠이며 사교 및 유행의 역할은 물론 도전과 성취 등의 요소를 고루 갖추고 있다[1]. 하지만 이러한 매력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골프참여 과정에서 생기는 다양한 시련으로 인하여 골프를 지속 수행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1]. 그렇다면 골프참여자들은 골프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이러한 시련을 어떻게 견디고 있을까? 이에 대한 답은 정지해와 김지태[1]의 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골프를 통한 회복 탄력성의 증진에서 찾고자 한다.

회복탄력성이란 현대인이 가질 수 있는 각종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는 심리요인으로써 자잘한 일상사 속에서 겪는 수많은 스트레스와 인생의 고민 그리고 인간관계에서의 갈등 등을 자연스럽게 이겨내기 위해서 필요한 힘이라 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자신이 겪게 되는 어려운 일이나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힘든 상황들을 딛고 일어서는 힘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2]. 따라서 현대사회에의 복잡한 일상에서 모든 어려움을 전

부 해소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어려움 들을 이겨내고 회복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현대인들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점에서 회복탄력성은 현대인들의 일상을 지속시키는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이에 Nolan, Taket, Stagnitti[3]는 몸의 힘이 몸의 근육에서 나오듯 마음의 힘은 마음의 근육에서 나온다고 하면서 회복탄력성을 바로 마음의 근력이라 하였다. 즉, 회복탄력성을 키운다는 것은 여러 가지 역경과 시련에 대한 면역력을 키운다는 뜻과 같다. 몸의 체력이 몸의 면역력을 높여주듯이 마음의 체력도 마음의 면역력을 높임으로써 일상의 어려움 들에 기인한 스트레스, 우울증과 같은 심리적인 질병을 막아주는 것이다. 따라서 골프를 통해 경험할 수 있는 여러 역경의 상황에 알맞고 유연하게 적응하는 능력을 키운다면 지속적인 골프참여는 물론 나아가 바쁘고 복잡한 현대사회를 지혜롭게 헤쳐 나갈 수 있는 능력, 즉 회복탄력성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골프참여자의 회복탄력성 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도자의 역할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한국골프연습장협회에 의하면 골프지도자의 수가 양적으로 급성장을 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하지만 골프지도자의 양적 성장에 비해 질적 성장은 동반되지 못한 실정이다[4]. 이에 이승은[5]은 오늘날 지도자로서 당연히 갖춰야 할 전문성이 없다면 고객들은 뒤돌아서기 마련이라 하면서, 생존하기 위해 고객 중심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모색해야 한다고 하였다. 특히 골프레슨과 같은 1:1

서비스는 지도자와 고객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지도자의 레슨 능력과 더불어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6]. 이밖에 주형철, 조남홍, 조원호[7]도 신뢰가 상호간 관계 지향성을 극대화 시키며, 지도자와 수강생간의 관계의 질을 높이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하여 골프참여자와 지도자의 관계에서 신뢰의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신뢰란 타인과 관계에서 타인이 보여준 책임, 약속, 정직, 기대충족 같은 요소로 인해 타자에게 더욱 믿음이 가는 심리적 상태라 정의할 수 있다[8]. 인간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무엇에 의지해 다양한 선택지 중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을까? 믿음직함, 안정성, 일관성, 예측 가능성 등을 포괄하는 개념인 '신뢰'가 그중 하나일 것이다[9]. 따라서 신뢰는 해당 집단의 목표달성에도 더욱 효과적으로 다가갈 수 있게 한다[10]. 개인 대 개인, 개인 대 단체 활동에 있어 무형의 관계적 자산을 형성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신뢰를 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뢰와 같은 무형의 관계적 자산은 21세기 사회에서 물질, 인적 가치보다 더욱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고 있다[11]. 골프는 대중화가 진행되면서 다양한 계층, 다양한 연령의 골프 인구가 유입되었고, 이에 다양한 골프 인구가 요구하는 새로운 지도자 신뢰 개념이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지도자 자격증 협회 난립으로 인해 골프지도자 신뢰 및 가치가 절하되고 있는 상황에서 골프 문화의 질적 향상을 위해 서라도 골프지도자의 신뢰에 대한 개념 연구는 현 시점에서 매우 필요하다고 판단되며[12], 이러한 노력은 골프참여자의 회복탄력성을 향상시키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한편, 2017년에 여가 활성화법이 시행되면서 누구나 여가생활을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13]. 여가 활성화법을 비롯한 국민 여가 활성화 기본계획, 여가 스포츠 활성화 추진 계획, 국민 여가 활동조사 등의 정책은 여가생활 증진 방안을 모색하는 근거가 되었으며 학자들 또한 연구를 통해 국민들의 여가생활을 증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14]. 그중 여가활동 참여를 통해 나타나는 사회 심리적 요인을 규명하는 것은 여가 스포츠 참여 증진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14]. 이에 김영재, 조정형[14]은 여가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사회문화적, 자아실현적, 환경적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측면을 고려한 요인이 바로 여가 이득이

라 하였다. 여가 이득이란 여가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여러 부분에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을 말하며, 신체적 이득, 사회적 이득, 경제적 이득, 심리적 이득과 같이 여러 방면에서 여가 이득이 나타난다고 보고되고 있다[15]. 여가 이득은 Driver[16]가 여가활동을 통해 나타나는 긍정적 효과로 정의하면서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었다. 신체, 사회, 경제, 건강, 환경 등의 참여 효과를 규명한 여가 이득 요인은 여가활동을 참여하는 도중에 부상이나 일탈 및 갈등 등의 부정적인 경험을 하더라도 그 활동에 이득이 있다고 인지하면 참여를 지속하게 된다는 이론이다[17]. 이에 Driver, Brunts[18]는 여가 이득과 관련된 연구가 여가 스포츠 현장의 관리자 또는 지도자들이 여가 참여자들의 실질적 이득에 관한 정보 수집, 지도자 교육, 서비스 운용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골프참여자에 대한 여가 이득은 지도자의 역할, 즉 골프참여자와 지도자 간의 신뢰형성을 바탕으로 획득할 수 있으며, 또한 골프참여자의 회복탄력성을 높이는데 중요한 길잡이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선행연구를 통한 변인 간 인과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도자 신뢰와 여가 이득의 관계는 김경렬[19]의 연구에서 지도유형이 여가 이득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지도유형에는 지도자에 대한 믿음이 포함되어 있어 본 연구의 변인 간 인과관계를 지지하고 있다. 둘째, 여가 이득과 회복탄력성의 관계는 박솔기, 조인환[20]의 연구에서 여가 만족이 회복탄력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여가 이득은 사회문화적, 자아실현적, 환경적 측면 등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지만, 여가 만족은 사회 심리적 결과를 위주로 제시한다. 그러나 여가 이득은 여가 만족을 기반으로 이루어진 이론이기에 본 연구의 변인 간 인과관계를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지도자 신뢰와 회복탄력성의 관계는 송은일, 이종호[21]의 연구에서 지도자의 지지가 대학태권도선수의 회복탄력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여 본 연구의 변인 간 인과관계를 지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골프참여자의 지도자 신뢰와 여가 이득 및 회복탄력성의 구조적 관계를 규명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바람직한 여가활동으로써 골프를 선택하고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평생 체육의 발판을 마련함과 동시에 나아가 골프를 통해 복잡하고 어려운

현대사회를 현명하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 경기, 인천, 대전, 대구 지역에 소재한 골프연습장 이용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표본은 영업이익을 추구하는 사설 업장의 특성상 비확률 표본추출법(non-probability sampling) 중 편의표본추출법(Convenient sampling method)을 사용하여 표본을 추출하였다. 설문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평가기입법(Self-administration)으로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총 250부를 배부하여 불성실하다고 판단되거나 설문지 내용의 일부가 누락된 12부와 결측치가 있는 4부를 제외한 234부의 자료가 실제분석에 사용되었다. 본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Table 1>과 같이 나타났다.

### 2.2. 측정도구

#### 2.2.1 설문지 구성

본 연구에서 골프참여자의 지도자 신뢰의 척도

는 Levering[22]의 측정 도구를 바탕으로 정기산[23]이 번안하고 이남용[24]이 사용한 설문지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여가 이득은 Driver[16]가 사용한 여가 이득 척도(Leisure Benefits Scale; LBS)를 번안하고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회복탄력성은 ‘스트레스를 겪은 후 평정을 되찾는 심리적 회복능력’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Fu et al.[25]은 Connor & Davidson[26]에 의해 개발된 the Conner-Davidson Resilience Scale(CD-RISC)을 중국의 2008년 중국 대지진을 겪은 중국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사용하여 CD-RISC 측정척도의 범문화적인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우울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박준현[27]의 연구에서 그 타당성이 입증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들 연구에서 사용된 CD-RISC 척도에서 본 연구의 취지에 맞는 8문항을 선택하여 설문을 구성하였다. 각 항목은 1(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매우 그렇다)의 Likert 5점 척도로 평정하게 되어 있으며, 설문지의 내용은 인구통계학적 요인 5문항, 지도자 신뢰에 관한 요인 7문항, 여가 이득에 관한 요인 20문항, 회복 탄력성에 관한 요인 8문항으로 총 4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Table 2>와 같다.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Golf Participants

	Variables	Participants(N)	Frequency(%)
Gender	Male	128	54.7
	Female	106	45.3
Age	20-30	38	16.2
	31-50	114	48.7
	over 51	82	35.0
Golf career	1 - below 3 years	43	18.4
	More than 3 - below 6 years	68	29.1
	More than 6 years	123	52.6
Golf lesson	Below 1 year	37	15.8
	1 - below 6 years	106	45.3
	More than 6 years	91	38.9
Average score	Below 80	38	16.2
	80-90	80	34.2
	90-100	60	25.6
	over 100	56	23.9
Total		234	100

Table 2. Summary of the Scales Used

Scale	Item	Number of Question
Demographics	Gender, Age, Golf career, Golf lesson, Average score	5
Trust of Instructors	Trust of Instructors.	7
Leisure Benefit	Psychological Benefits, Growth Benefits, Satisfaction Benefits, Physical Benefits, Social Benefits	20
Resilience	Positive Property, Adaptability	8
	Total	40

### 2.2.2 설문지의 신뢰도 및 타당도

본 연구를 위한 설문지 제작 후 스포츠 심리전공 교수 1인과 박사과정 연구원 2인에게 문항 내용의 적합성 확인을 위해 내용 타당도(content validity)를 검증받았고, 구성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는데, 이는 학계에 충분한 이론적 구조가 정립되지 않은 척도의 경우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설문지의 타당도를 검증하여 사용하기 때문이다[28]. 탐색적 요인분석의 요인 추출방식은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이용 하였으며, 직각 회전방식인 베리 맥스(varimax)방식을 이용하였다. 요인은 Eigenvalue가 1 이상인 요인만을 추출하였고 Cronbach's  $\alpha$  계수를 이용한 신뢰도 분석에서 모두 .7 이상으로 측정 도구로써의 내적 일관성 확보가 됨과 동시에 연구를 위한 측정 도구로써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증되었으며, 지도자 신뢰의 신뢰도는 .876으로 나타났다(Table 3), (Table 4).

### 2.2.3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처리는 Window용 SPSS 18.0과 AMOS 18.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과 탐색적 요인 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상관 관계 분석,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 하였다. 또한,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여 판별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과 집중 타당성(convergent validity)을 검증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에서 모형평가는 카이제곱 검증이 표본 크기에 민감하고 영가설이 상당히 엄격하므로 카이제곱 검증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모형을 평가하지 않기 때문에[29]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적합도 지수가 개발되었다. 그 중 RMSEA와 TLI 그리고 CFI 지수가 표본

크기에 민감하지 않고,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한 동시에 명확한 해석 기준이 확립된 적합도 지수이기 때문에[30], [31] 본 연구에서는 이에 맞춰 적합도를 평가하였다. 이에 Bentler[30]와 Tucker & Lewis[31]에 따르면 TLI와 CFI의 경우 1부터 0의 연속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그 값이 .90이상이면 최적의 적합도라 하였고, Browne & Cudeck[31]는 RMSEA가 .08이하이면 좋은 모델로 평가되고 .10이하 이면 보통모델로 평가된다고 하여 최종적으로 본 연구모형이 적합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Table 5)와 같다.

## 3. 연구결과

### 3.1. 각 요인 간의 상관관계

(Table 6)은 골프참여자의 지도자 신뢰, 여가 이득, 회복탄력성에 대한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모든 요인은 상호 간의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상관계수의 값이 .85를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33].

### 3.2. 연구모형의 인과관계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골프참여자의 지도자 신뢰와 여가 이득 및 회복탄력성의 관계를 검증한 결과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Table 7)에 제시된 바와 같이 TLI=.943, CFI=.953, RMSEA=.052로 나타났다. 각 가설을 검증한 결과는 (Table 8)에 제시된 바와 같다. 지도자 신뢰가 여가 이득에 미치는 영향의 표준화 계수값은 .508로 유의수준 .001에서, 여가 이득이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의 표준화 계수값은 .296으로 유의수준 .05에서

Table 3. EFA Results for Leisure Benefits and Reliability Coefficient

Items	Satisfaction benefits	Social benefits	Growth benefits	Psychological benefits	Physical benefits
a11	.840	.139	.035	.071	.047
a9	.806	.067	-.055	.132	.052
a12	.791	.049	.141	.002	.025
a10	.791	.105	.020	.080	.162
a18	.104	.845	.079	.047	.136
a20	.053	.808	.164	.042	.028
a19	.116	.794	.071	.039	.106
a17	.097	.717	.002	.153	.238
a5	-.009	.070	.795	.184	.091
a8	.036	.071	.781	.124	.127
a6	.120	.102	.768	.195	.098
a7	.003	.078	.745	.165	.166
a4	.021	.057	.098	.837	.131
a3	.111	.077	.161	.741	.078
a2	.040	.147	.210	.709	.004
a1	.105	-.012	.172	.708	.041
a15	.029	.081	.110	.033	.771
a13	.148	.137	.107	-.017	.738
a16	-.005	.206	.041	.145	.706
a14	.106	.044	.204	.093	.692
Eigenvalue	2.719	2.675	2.625	2.456	2.321
Variance(%)	13.593	13.374	13.124	12.281	11.604
Cumulative(%)	13.593	26.967	40.092	52.372	63.976
Cronbach' $\alpha$	.838	.829	.817	.776	.746

KMO=.794,  $\chi^2=1768.879$ , df =190, p<.001

Table 4. EFA Results for Resilience and Reliability Coefficient

Items	Positive Property	Adaptability
b6	.819	.196
b7	.796	.187
b8	.780	.277
b6	.770	.293
b2	.188	.804
b3	.170	.800
b1	.281	.778
b4	.310	.711
Eigenvalue	2.746	2.634
Variance(%)	34.328	32.923
Cumulative(%)	34.328	67.250
Cronbach' $\alpha$	.846	.823

KMO=.867,  $\chi^2=799.735$ , df =28, p<.001

Table 5. The Results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Items	$\chi^2$	df	CFI	TLI	RMSEA
Trust of Instructors a)	-	-	-	-	-
Leisure Benefit	243.010	160	.949	.940	.047
Resilience	32.932	19	.982	.974	.056

a)= saturated model

Table 6. Correlation Analysis among Variables

Variable	Trust of Instructors	Psychological benefits	Growth benefits	Satisfaction benefits	Physical benefits	Social benefits	Positive Property	Adaptability
1	1	.296**	.235**	.216**	.166*	.266**	.289**	.253**
2		1	.413**	.109**	.181**	.213**	.177**	.142*
3			1	.132*	.286**	.239**	.199**	.118
4				1	.167*	.240**	.216**	.157*
5					1	.288**	.133*	.135*
6						1	.132*	.142**
7							1	.555**
8								1

\*p&lt;.05, \*\*p&lt;.01

Table 7. The Results of Structural Model Fit Index

Model	$\chi^2$	df	CFI	TLI	RMSEA
Research model	120.405	74	.953	.943	.052

Table 8. The Results of Path Analysis

	Path	Estimate	S.E.	t-value	
H-1	Trust of Instructors → Leisure benefit	.508	.059	4.705***	Accepted
H-2	Leisure Benefit → Resilience	.296	.199	2.439*	Accepted
H-3	Trust of Instructors → Resilience	.226	.090	2.240*	Accepted

\*\*\*p&lt;.001, \*p&lt;.05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지도자 신뢰가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의 표준화 계수값은 .226으로 유의수준 .05에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1, 2, 3 모두 채택되었다.

### 3.3. 지도자 신뢰와 회복탄력성의 관계에서 여가 이득의 매개 효과분해

지도자 신뢰와 회복탄력성을 설명하는 총 효과는 .376으로 나타났으며, 여가 이득을 통한 간접

효과는 .150으로 나타났다.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그 결과 여가 이득을 통한 지도자 신뢰와 회복탄력성의 효과가 “0”이라는 가정하에 간접효과인 여가 이득의 신뢰구간이 .033~.297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0”이 신뢰구간 사이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영가설은 기각하였고,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Table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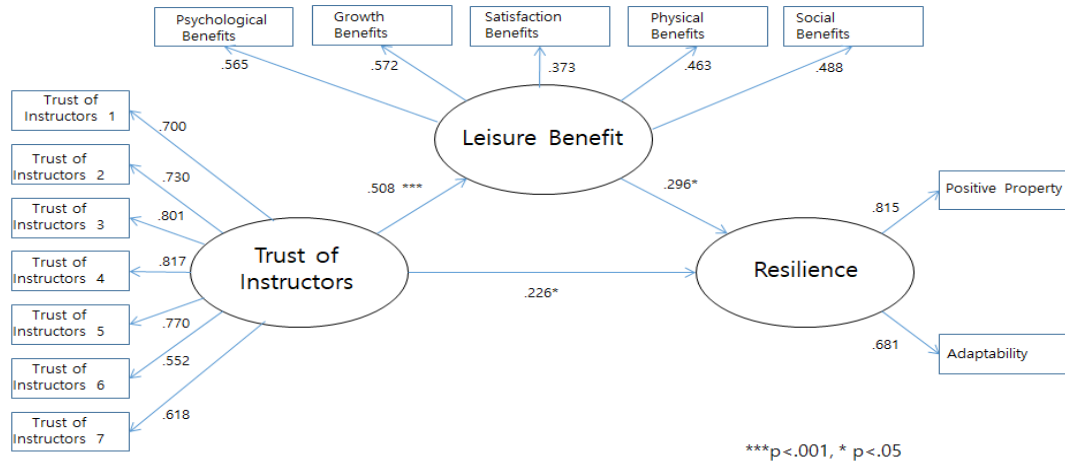


Fig. 1. The results of proposed model measurement.

Table 9. The Results of Direct/Indirect Effect: Leisure Benefit

Path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Trust of Instructors → Leisure Benefit	.508***		.508
Leisure Benefit → Resilience	.296*		.296
Trust of Instructors → Resilience	.226*	.150	.376

\*\*\*p<.001, \*p<.05      Direct effect 60%, Indirect effect 40%

Table 10. The Results of Competitive Model

Model	$\chi^2$	df
Partial mediation effect	125.292	75
Full mediation effect	120.405	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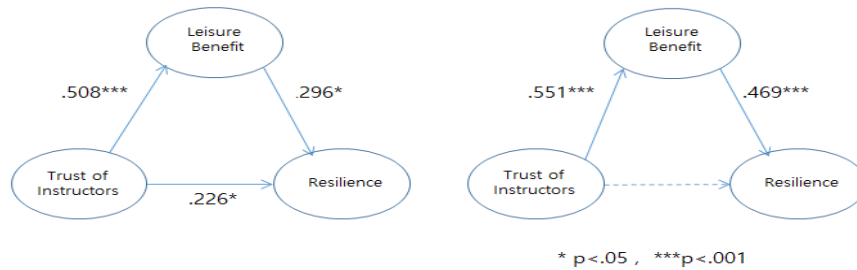


Fig. 2. The results of model comparison.

### 3.4. 지도자 신뢰와 회복탄력성의 관계에서 여가 이득의 경쟁 모델 비교

골프참여자의 지도자 신뢰와 회복탄력성의 관계에서 여가 이득의 매개 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그 효과가 부분적으로 매개하는지,

아니면 완전히 매개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두 모형의  $\chi^2$  값의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자유도 1에서  $\chi^2$  값의 차이는 4.887로 나타났으며,  $\chi^2$  차이 값이 임계비 값인 3.84보다 크기 때문에 부분 매개모형이 채택되었다(Table 10),



<Figure 2>. 즉, 여가 이득은 지도자 신뢰와 회복탄력성의 관계에서 부분적으로 매개한다고 할 수 있다.

#### 4. 논의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골프참여자의 지도자 신뢰는 여가 이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골프참여자가 지도자를 신뢰할수록 골프를 통한 여가 이득이 향상된다는 결과로써 골프의 참여과정에서 생기는 다양한 혜택들이 지도자의 지도 및 안내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해석된다. 따라서 지도자가 골프참여자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지도프로그램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김경렬[19]은 항공 스포츠참여자를 대상으로 지도자에 대한 믿음이 여가 이득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이 밖에 김성훈[34]은 청소년의 여가 이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도자 및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체육활동 시간을 통해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둘째, 골프참여자의 지도자 신뢰는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골프라는 종목의 특성상 골프참여과정에서 생기는 다양한 시련들에 대해 참여자가 지도자에게 높은 의존도를 보여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따라서 골프참여자의 회복탄력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하며, 특히 신뢰를 형성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송은일, 이종호[21]의 대학태권도 선수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지도자의 지지가 선수의 회복탄력성을 증진 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또한 곽도훈[35]은 대학태권도 선수를 대상으로 지도자와 선수 간의 의사소통이 선수들의 회복탄력성을 높이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셋째, 골프참여자의 여가 이득은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골프에 참여하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부정적인 경험을 하더라도 골프참여자가 골프에 대한 이득을 분명하게 인지한다면 골프에 대한 지속적인 참여가 이

루어지고, 나아가 이러한 참여 태도는 어려운 일이나 힘든 상황을 딛고 일어서려는 힘을 향상시키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박슬기, 조인환[20]의 연구에서는 여가 만족이 회복탄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는데, 여가 이득은 여가 만족을 기반으로 확장된 개념으로 볼 수 있기에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에 이계석, 최성범, 한태용[36]도 여가를 통해서 만족감을 얻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제는 여가를 통해 자신이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이득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면서 여가 만족과 여가 이득의 연관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또한 장민지[37]는 벨리덴스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여가 참여 만족과 여가 이득 간의 유의미한 관계를 밝혀내어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넷째, 골프참여자의 지도자 신뢰와 회복탄력성의 관계에서 여가 이득은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골프참여자의 회복탄력성 향상을 위해서는 지도자와 골프참여자 간의 신뢰형성이 바탕이 되고, 나아가 이를 통해 여가 이득이 창출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해석된다. 따라서 골프에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역경의 상황을 이겨내고 적응하기 위해서는 지도자가 골프참여자들에게 신뢰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시도해야 하며, 더불어 골프참여자들에게 골프에 대한 단순한 만족을 넘어서 여가 이득을 창출해낼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에 배중우, 전신혜[38]는 사회인 야구리그 참여자를 대상으로 여가 경험과 사회적응의 관계에서 여가 이득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여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를 종합적으로 논의하자면 다음과 같다. 회복탄력성의 향상은 스포츠 현장에서 골프라는 종목의 특성상 발생하는 여러 힘든 상황에 노출되었을 때, 이를 이겨내고 적응하는 능력을 키운다는 의미로써 골프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일 뿐만 아니라 복잡하고 어려운 현대사회의 환경 속에서 현명하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골프를 통해 얻을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현대인들에게는 가장 유용한 무기가 될 것이다. 따라서 회복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필요한 현시점에서 본 연구는 가장 먼저 지도자의 역할에 주목하였다. 일반적으로 개인레슨을 주로 하는 골프의 특성상 고객맞춤식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

에 이승은[5]은 지도자가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 중심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따라서 골프지도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도법 교육 프로그램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노력으로 골프참여자들에게 무한한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 이라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결과에서는 여가 이득이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나타났다. 골프에 대한 여가 이득이란 단순한 만족감을 넘어서 골프를 통해 다양한 이득이 창출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골프의 참여가 만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며, 더불어 골프를 통해 다양한 이득이 생길 수 있도록 다양하고 편리한 서비스의 모색 및 나아가 골프참여자에 대한 세심한 관찰을 통한 심리적인 관리까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골프연습장 이용객을 대상으로 골프참여자의 지도자 신뢰와 여가 이득 및 회복탄력성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규명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었다. 설문지는 234부의 자료가 실제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자료처리는 SPSS 18.0과 AMOS 18.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과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모형을 설정한 뒤 구조방정식모형(SEM)을 통하여 변인간의 인과적 관계를 규명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골프참여자들의 지도자 신뢰는 여가 이득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골프참여자들의 여가 이득은 회복탄력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골프참여자의 지도자 신뢰는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골프참여자의 지도자 신뢰와 회복탄력성의 관계에서 여가 이득은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골프참여자의 회복탄력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골프지도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여가 이득의 증진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단순히 성인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후속연구에서는 골프경력이나 연령대를 기준으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하거나, 또는, 선수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비교한다면 더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연구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 이라 판단된다.

둘째, 본 연구는 변인들간의 구조적 관계에 집중하여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하위변인들 간의 세부적인 영향력을 파악하지 못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하위변인들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가 진행된다면 현대인들에게 회복탄력성의 향상을 위한 골프참여는 물론 지속적인 운동 수행에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가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설문지를 이용한 조사방법을 사용하였으나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심층적이고 구체적인 의견을 얻어내기 위해 개인의 풍부하고 주관적인 경험을 이끌어내기 유용한 질적 연구법을 병행한다면 보다 실질적인 연구결과를 도출해 낼 것이라 여겨진다.

#### 감사의 글

This paper was supported by Joongbu University Research & Development Fund, in 2020.

본 연구는 2020년도 중부대학교 교내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음.

#### References

1. J. H. Jung, J. T. Kim,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Golf Stress, and Resilience for Golf Participants", *The Korea Journal of Sport*, Vol.17, No.1, pp. 505-515. (2019).
2. J. H. Kim, "*Resilience*", Seoul: Wisdomhouse, (2011).
3. A. Nolan, A. Taket, K. Stagnitti, "Supporting resilience in early years classrooms: The role of the teacher", *Teachers and Teaching: Theory and Practice*, Vol.20, No.5, pp. 595-608, (2014).
4. Y. M., Park, E. S. Lee, H. G. Lee, "The Relationship between Coaching Style of Golf Instructors and Perceived Teaching Effectiveness" *The Korean Journal of Sport*

- Studies*, Vol. 42, No.4, pp. 223-233, (2003).
5. S. Y. Lee, "Using of Non-verbal Communication of a Golf Instructor Affects on Faith of Instructor and Concentration in Spor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4, No.10, pp. 543-551, (2016).
  6. L. L. Berry, "Relationship marketing of services", *Journal of the academy of marketing science*, Vol.23, No.4, pp. 236-245, (1995).
  7. H. C. Joo, N. H. Cho, W. H. Cho, "Relationship among image of aerobic dance instructors, customer satisfaction and customer loyalty", *Journal of Sport and Leisure Studies*, Vol.50, No.1, pp. 261-274, (2012).
  8. H. S. Jeon, "*The conceptualization of athletes' trust and the scale developmen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9. K. S. Adams, S. L. Christenson, "Trust and the family-school relationship examination of parent-teacher differences in elementary and secondary grades"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Vol.38, No.5, pp. 477-497, (2000).
  10. A. K. Mishra, "Organizational response to crisis: The centrality of trust", *Trust in organizations: Frontiers of Theory and Research*, pp. 261-287.
  11. R. D. Putnam, "The Prosperous Community: Social Capital and Public Life", *The American Prospect*, Vol.13, pp. 35-42, (1993).
  12. H. S. Lee, B. A. Choi, E. J. Kim, "Establish the Concept of Trust Composition of Golf Instructor Recognized by Golf Participants" *Journal of Golf Studies*, Vol.13, No.4, pp. 1-17, (2019).
  13.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2017).
  14. Y. J. Kim, J. H. Cho, "Analysis of Trends in Leisure Benefit Research in Korea: Focused on 2007~2018", *Journal of leisure and recreation studies*, Vol.42. No2, pp, 93-102, (2018).
  15. G. S. Cho, C. J. Park, "Structural relationship model among Participation's Motivation, Leisure Benefit and Life Satisfaction of Swimming Participants", *The Korea Journal of Sports Scidence*, Vol.18, No.4, pp. 201-211, (2009).
  16. B. Driver, "*The north american experience in measuring the benefits of leisure.*", In E. Hamilton Smith (Ed.), *Proceedings, National Workshop on measurement of Recreation Benefits* (pp. 1-57). Bandoora Australia: Philip Institute of Technology, (1990).
  17. I. Ajzen, B. L. Driver, "Application of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to leisure choice", *Journal of leisure research*, Vol.24, No.3, pp. 207, (1992).
  18. B. L. Driver, D. H. Bruns, "Concepts and use of the benefit approach to leisure", *Leisure studies*: 349-369, State College, PA: Venture Publishing, (1999).
  19. K. R. Kim, "Korean society of sport and leisure studies", *Journal of sport and leisure studies*, Vol.50, No.1, pp. 629-637, (2012).
  20. S. G. Park, I. H. Cho, "A study on leisure satisfaction as antecedent of resilience : Focusing on college student", *Korean Hospitality and Tourism Academe*, Vol.26, No.6, pp. 175-189, (2017).
  21. E. I. Song, J. H. Lee,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by University Taekwondo Players on Resilience and Exercise Intention", *The Korean Journal of Sport*. Vol.16, No.1, pp. 459-468, (2018).
  22. R. Levering, "*A Great Place to Work: What makes some employers so good(and most so bad)*", San Francisco: A Great Place to Work Institute.
  23. K. S. Cheong, "*Relationship between middle managers' behavioral characteristics by leadership style and followers' trus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2002).

24. N. Y. Lee, "Relation with golf practice range user's leader trust and customer satisfaction and re-register inten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Graduate School Jeonju University, (2010).
25. C. Fu, J.-M. Leoutsakos, C. Underwood, "An examination of resilience cross-culturally in child and adolescent survivors of the 2008 China earthquake using the Connor-Davidson Resilience Scale(CD-RISC)"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Vol.155, No.0, pp. 149-153, (2014).
26. K. M. Connor, J. R. Davidson, "Development of a new resilience scale: The Connor-Davidson resilience scale(CD-RISC)", *Depression and anxiety*, Vol.18, No.2, pp. 76-82, (2003).
27. J. H. Park, "Effectiveness of resilience promoting program in depressive patients", Department of Medicine Graduate School, In-je University, (2012).
28. G. S. Kim, "AMOS 18.0 Analysi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oul: Hannara academy, (2010).
29. S. H. Hong, "Structural equation model thesis writing", Seoul: Communicationbooks, (2009).
30. P. M. Bentler, "Comparative fit indexes in structural models", *Psychological Bulletin*, Vol.107, No.2 pp. 238-246, (1990).
31. L. R. Tucker, C. Lewis, "A reliability coefficient for maximum likelihood factor analysis", *Psychometrika*, Vol.38, pp. 1-10, (1974).
32. M. W. Browne, R. Cudeck,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K. A. Bollen & J. S. Long(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New buri Park, CA: Sage, (1993).
33. R. B. Kline,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2ed ed.)", New York: Guilford Press, (2005).
34. S. H. Kim, H. B. Lee, A. S. Lee, "Effects of Leisure Activities Participation on Leisure Attitudes and Benefits in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Vol.51, No.3, pp. 305-319, (2012).
35. D. H. Kwak, "The effect of taekwondo instructor's communication on college taekwondo athletes's resilience", Unpublished master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Yongin University, (2019).
36. K. S. Lee, S. B. Choi, T. Y. Han, "Impact of Leisure Satisfaction of Leisure Sports Participants on Leisure Involvement and Leisure Benefits", *The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Vol.53, No.2, pp. 423-431, (2014).
37. M. J. Jang, "The Effect of Leisure Satisfaction on Leisure Performance and Leisure Benefit of Belly Dancing Participants", *The Korea Journal of Sport*, Vol.18, No.1, pp. 187-197, (2020).
38. J. W. Bae, S. H. Jun, "Effect of Amateur Baseball League Participants` Leisure Experiences and Leisure Benefits on Social Adaptation", *Journal of Korean Physical Education Association for Girls and Women*, Vol.27, No.4, pp. 79-91, (2013).